

수도 평양의 곳곳에서 풍기는 군밤, 군고구마향기

바람결을 타고 구수하게 풍겨오는 밤과 고구마향기는 냄새, 알숙이 새노랑계 익은 군밤과 김이 문문 나

는 군고구마를 훌훌 불며 맛있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 요즘 어딜 가나 볼수 있는

평양의 풍경이다. 어느 때나 그리하듯이 평양역앞에 위치하고있는 중구역채과매소의 군밤, 군

손에 쥐어주고 호뭇하게 바라본다. 김이 문문 나는 군고구마를 맛보며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부부며 자식

다. 《이곳 봉사원들의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추고받는 손님들의 찬사에 신바람이 나는듯 봉사원들도 쟁쟁히 일



고구마매대들도 구수한 향기를 풍기며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우고있다. 중구역 역전동에 산다는 최정옥 할머니는 《군고구마는 이렇게 구워내자마자 먹어야 제맛이 난단다.》라고 하며 절절을 절반쯤 벗긴 군고구마를 손자의

《이 대대에서 구운 고구마는 언제 봐야 별맛입니...》 《이곳 봉사원들의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구동성으로 추고받는 손님들의 찬사에 신바람이 나는듯 봉사원들도 쟁쟁히 일손을 놀리고있다. 일찌기 수도시민들에게 군밤과 군고구마를 먹이기 위해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속에 곳곳에 꾸러진 군밤, 군고구마매대들은 날마다 찾아오는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예, 또 오십시오.》 군밤, 군고구마의 구수한 향기에 실려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또한 밝고 명랑하다. 본사기자 리철민

민족유산보존사업에 힘을 넣어



민족유산에는 물질유산과 함께 비물질유산 그리고 보통강약수와 같이 자연유산도 있다. 보통강약수가 주변환경과 더 잘 어울릴수 있도록 꽃관목들과 수종이 좋은 수백그루의 나무들을 심었다. 수심m의 석축공사도 진행하고 휴식

새책소개

시집 《복받은 삶의 노래》

평양출판사에서 시집 《복받은 삶의 노래》를 출판하여 내놓았다. 시집에는 시 《축복받은 새해 2021년이여》, 서사시 《인민사랑의 력사는 끝없이 흐르리라》, 시 《운명의 하늘》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높이 모신 공화국인민들의 한없는 긍지와 그이의 품에 안겨 만복의 삶을 누려가고있는 인민들의 행복상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들이 편집되어있다. 그리고 시조 《더 밝게 웃어라》, 시 《내 조국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등 세상에 부럽없이 자라나는 공화국의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시들도 있다. 시집에는 또한 평범한 인민들의 생활에서 꽃피어나는 사랑과 정,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에 대하여서도 서정적으로 잘 보여준 시들도 있다. 본사기자

심원사

연안군의 자비산중턱에 고려시기의 사찰인 심원사가 있다. 심원사를 처음 세운 년대는 명확치 않으나 증심건물인 보광전은 1374년에 크게 고쳐졌고 그후 여러 차례 보수하였다고 한다. 이 건물은 성불사 응진전(황해북도 사리원시), 평안북도 박천군 심원사 보광전, 부석사 무량수전(경상북도 영주시)과 함께 현재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옛 목조건물 가운데서 년대가 가장 오래된 아니라고 고려시대 건물인 우수한 특징을 잘 갖춘 뛰어난 건물이다. 보광전은 정면 3칸(10.98m), 측면 3칸(7.55m)인 남향의 단층합각식건물이다. 건물정면의 양옆간에는 격자무늬를, 가운데에는 모란과 연꽃을 풍성하게 뽐내신 꽃살문을 달아 건물을 더욱 화려하게 하였다. 단청은 대부분 18세기에 다시 한것이지만 일부 요소들에 은은하고 무거운 고려시기의 단청이 남아있어 성불사 응진전의 단청과 함께 고려단청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국보유적 제91호로 등록되어 관리되고있는 심원사는 고려시기의 건축술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공화국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들 가운데는 건물이것만도 아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물고기나 조개, 물고기의 알과 내장을 소금에 절여 양념하여 삭힌 것 같은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왔다. 역사문헌자료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물고기내장으로 젓갈을 담그어먹었다. 이러한 식생활습관은 고려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당시 일반주민들의 밥상에는 물론 국가적인 연회나 제상에도 젓갈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담근 젓갈들은 그대로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혹은 죽이나 김치, 지지개, 찜개와 같은 음식에 조금씩 넣어 맛을 돋구기도 하였다. 평안도를 기본으로 한 서

소설

24 절기의 허니

소설은 눈이 조금씩 내린다는 뜻이다. 소설날 평양지방에서 해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상용시간)은 각각 7시 28분, 17시 19분이고 낮길이는 9.85시간이다. 소설날 평양에서 진정오는

윤봉길렬사는 1932년 4월 중국 상해에서 해외침략에 날뛰던 일제의 고위급인물들을 살상한 폭탄투척사건의 주인공이다. 1908년 5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의 자그마한 농촌에서 태어난 그는 7살에서 당공부를 시작해서 12살에 벌써 일본의 식민지노예교육을 거부하여 덕산공립보통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 그후 그는 《월진회》라는 조직을 내고 야학을 운영하면서 농업증산운동을 벌였으며 《농민독본》도 썼다. 1928년에 그는 야학에서 일본경찰의 만행을 폭로한 풍자극을 창작발표한것이 죄가 되어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악착한 교문을 받았다. 1930년 3월 22살의 윤봉길은 《장부출가생활환》(대

윤봉길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떠날 때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글을 남기고 고향을 떠났다. 독립을 위한 뚜렷한 목표도 없이 방황하던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 발탁되어 《한인애국단》에 가맹하였다. 1932년 1월 《상해사변》이 일어난 후 일제는 상해의 홍구공원에서 《천장절》 기념식을 요란하게 해서 저들의 힘과 무력을 과시하려 하였다.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긴 윤봉길은 1932년 4월 29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홍구공원으로 떠났다. 행사가 끝날 때쯤 되자 그는 불려진 사람들을 비집고 유유히 앞으로 나와 주석단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거사는 성공하였으며 상해 주둔 일본사령관 시라가와대장파 무라이상해총령사, 가와하시 거류민단장이 즉사하고 여러명의 고위급군인물들이 중상을 당함으로써 내외에 큰 파문이 일게 되었다. 일본헌병들에게 쫓겨난 그는 취조과정에 자기가 한 행동은 조선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알게 하자는 데 있다고 단정하게 말하였다. 1932년 12월 19일 일제는 일본의 가나자와에서 윤봉길을 총살하고 시신을 그 누구

집을 서로 바꾸다

한 량반집을 가운데 두고 왼쪽집에는 목수가, 오른쪽집에는 대장장이가 각각 세를 내고 들어왔다.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두집에서 풀무질, 마치고, 대패질, 톱질, 못질 등을 하다가니 그 소리에 량반은 그만 불면증이 생겼고 하루바삐 그 두사람을 먼 곳으로 내보내라고 집주인에게 호통질이 그칠새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대장장이와 목수가 량반을 찾아왔다. 《그동안 동네를 시끄럽게 한 일을 백번 사죄하오며 분부대로 곧 집을 옮기겠습니다.》 이에 량반은 《야단을 했

보쌈 김치 (1)

보쌈김치는 조선중서부 개성지방의 민족특산음식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무우와 배추를 썰어서 양념한것을 배추잎에 싸서 국물과 함께 독에 넣어 익힌 김치이다. 김치는 김치이되 보자기에 싸듯이 한 김치라는 뜻으로 보쌈김치라고 일러오는 것이다. 이 김치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세상에 전해졌으며 어떻게 시대를 더불어 변천되어 왔는가를 전해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1) 개성 동대문을 나서서 동북쪽으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월곡리라는 동네가 나온다. 나무가 울창한 깊은 산골인데다가 땅이 척박하여 이 마을사람들은 혼한 나무로 숲을 굶거나 뿔나무를 해다 팔아서 생계를 이어왔다. 조선봉건왕조초에 이 마을에 고분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어

백암검은돈은 량강도 백암군 박천로동자구일대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검은돈은 조선의 특산이종이고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고급털가죽검은돈으로서 그 리용 가치가 높으므로 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36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다. 소설날에 이르러서부터 털이 떨어진다고 하였지만 내리는 날자는 해에 따라 차이가 크고 지방에 따라라도 같지 않다. 올해의 소설은 11월 22일이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백암검은돈

이 지역은 백두산줄기의 누른봉(2 033m), 백사봉(2 102m)과 같은 높은 산들이 잇닿아있고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무, 자작나무, 사시나무, 마가목 같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으며 들각담, 진대나무, 나무구새통 등이 많다. 이곳에는 또한 여러가지 쥐뉘, 철서류, 산도끼, 개구리, 뱀, 새 그리고 박쥐와 그 지류에 멸종기가 많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은 검은돈의 좋은 살이조건과 먹이를 쉽게 얻을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어 조선에서 대표적 인 검은돈살이터로 되어있다. 본사기자